

제 4 교시

사회탐구 영역 (윤리와 사상)

성명  수험 번호  -    제 [ ] 선택

윤리와 사상

1. 다음 가상 편지를 쓴 고대 동양 사상가가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○○에게  
 자네가 사람의 본성과 인위의 관계에 대해서 물었기에 편지를 쓰네. 사람이 배울 수도 없고 애쓸 수도 없지만 사람이 갖추고 있는 것을 본성[性]이라고 한다네. 반면 배울 수 있고 애쓰면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인위[僞]라고 하네. 이것이 본성과 인위의 분별[性僞之分]이라네. 그러므로 반드시 성인의 교화로 인도한 뒤에야 비로소 서로 예의를 갖추게 되어 세상이 다스려지는 것이라네. ... (후략).

- ① 겸허와 부쟁(不爭)의 덕을 지니고 자연의 순리에 따라야 한다.
- ② 잃어버린 본심을 되찾기 위하여[求放心] 사단을 확충해야 한다.
- ③ 연기(緣起)의 이치를 깨달아 집착을 버리고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.
- ④ 타고난 본성[性]을 변화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.
- ⑤ 모든 분별과 차별에서 벗어나 만물을 평등하게 대해야[齊物] 한다.

2. 사회사상가 갑,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 [3점]

갑: 자유방임적 경제 질서의 결함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조세 정책과 이자율 조정으로 소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투자 계획을 통해 유효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. 투자의 포괄적 사회화, 즉 공적 투자의 창출이 완전 고용에 가까운 상태를 확보하는 유일한 수단이다.  
 을: 더 많은 자유를 가져다 준다는 사회주의의 약속은 실제로는 자유가 아니라 노예 상태로 가는 지름길이다. 경쟁 사회의 사유 재산제를 기반으로 한 자유 기업 시스템이야말로 부자뿐 아니라 가난한 사람에게도 가장 중요한 자유 보장 방법이다.

- ① 갑: 정부는 사유 재산제 철폐를 통해 실업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.
- ② 갑: 정부는 시장 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.
- ③ 을: 정부 규모를 확대하여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증진해야 한다.
- ④ 을: 정부는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위해 계획 경제를 도입해야 한다.
- ⑤ 갑, 을: 정부는 재화의 재분배를 위해 시장의 자생적 질서에 개입해야 한다.

3. 고대 서양 사상가 갑, 근대 서양 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? [3점]

갑: 선의 이데아를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다. 선의 이데아 때문에 올바른 것이 유익하게 된다. 다른 것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이를 알지 못하면, 아무런 쓸모도 없게 될 것이다.  
 을: 이성을 사용하면서 발명과 발견을 중시하지 않아 학문의 발전이 없었다. 형식 논리학의 경우,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 내지 않고 기존 지식을 맹신함으로써 우상에 빠졌다.

- ① 갑: 참된 지식은 이성으로 파악되는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것이다.
- ② 갑: 국가를 통치하는 자에게는 오직 지혜의 덕만이 필요하다.
- ③ 을: 새로운 지식은 귀납 논리가 아니라 연역 논리로 얻어진다.
- ④ 을: 인간은 진보와 과학 발전에 대한 열망 때문에 우상에 빠진다.
- ⑤ 갑, 을: 관찰과 실험만이 편견과 무지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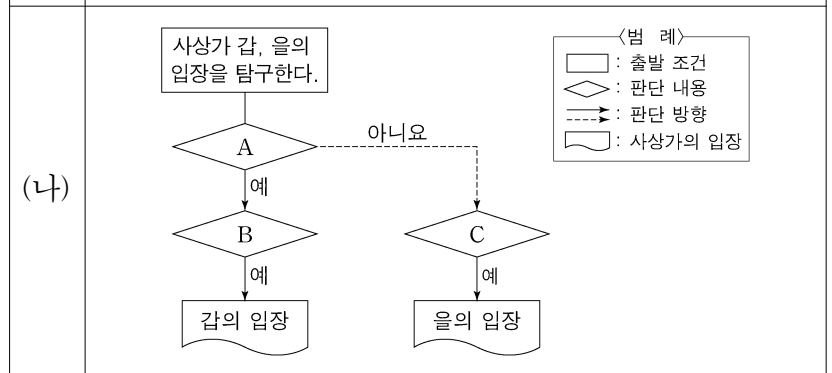
4. 한국 불교 사상가 갑,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갑: 교학(敎學)과 지관(止觀)을 함께 해야 한다. 교종은 외적인 공부에 치중하고, 선종은 내적인 공부에 치중한다. 따라서 내외겸전(內外兼全)하지 못하는 수행은 참다운 수행의 방법이 아니다.  
 을: 선정(定)은 본체(體)이고 지혜(慧)는 작용(用)이다. 지혜는 본체를 마주하여 나온 작용이므로 선정을 떠나지 않고, 선정은 작용을 마주하여 나온 본체이므로 지혜를 떠나지 않는다.

- ① 갑: 모든 존재는 자성(自性)이라는 고정된 실체를 지니고 있다.
- ② 갑: 경전을 충실하게 공부하면 참선 수행까지 할 필요는 없다.
- ③ 을: 본체인 선정을 작용인 지혜보다 우선적으로 닦아 나가야 한다.
- ④ 을: 선(禪)은 부처의 말씀과 같고 교(敎)는 부처의 마음과 같다.
- ⑤ 갑, 을: 세상의 모든 것이 변화한다는 것[無常]을 깨달아야 한다.

5. (가)의 사회사상가 갑, 을의 입장을 (나)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, A~C에 들어갈 옳은 질문만을 <보기>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? [3점]

(가) 갑: 유토피아에서는 필요한 것을 아무런 문제없이 얻는다. 사람들은 10년마다 제비를 뽑아 집을 교환한다. 그들은 6시간 일하고 남은 시간은 원하는 대로 활용할 수 있으나, 나태하게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.  
 을: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해 이룩된 공산 사회에서는 모든 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될 만큼 생산물이 산출될 것이다. 구성원들의 소질이 다방면으로 사용될 기회가 제공되며 종래와 같은 분업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.



<보기>  
 ㄱ. A: 사유 재산 제도하에서 소유의 평등을 추구해야 하는가?  
 ㄴ. B: 이상 사회에서는 성인의 노동과 지적 활동이 보장되는가?  
 ㄷ. C: 이상 사회에서는 계급이 사라지고 자아실현이 가능한가?  
 ㄹ. C: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아야 하는가?

- ① ㄱ, ㄴ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② ㄱ, ㄹ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③ ㄷ, ㄹ
- ④ ㄱ, ㄴ, ㄷ 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⑤ ㄴ, ㄷ, ㄹ

## 2 (윤리와 사상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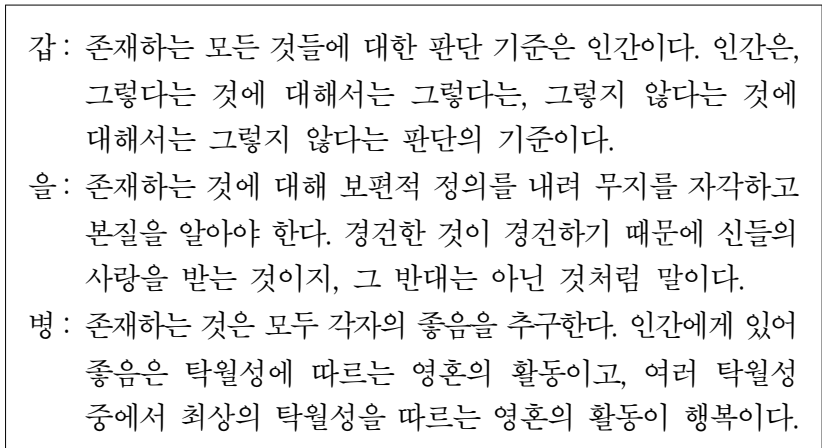
## 사회탐구 영역

6. 가상 대화의 ‘스승’은 동양 사상가이다. ㉠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

- ① 사사로운 욕심을 없애서 하늘의 이치[天理]를 보존하는 것이네.
- ② 정신을 하나로 집중하여 고요하게 경건함을 유지하는 것이네.
- ③ 사물에 나아가 그 이치를 궁구하여 앎을 극진히 하는 것이네.
- ④ 타고난 양심을 지켜 내고 본성을 함양하여 늘 성찰하는 것이네.
- ⑤ 마음의 바르지 못한 것을 없애서 본래의 바름을 회복하는 것이네.

7. 고대 서양 사상가 갑, 을, 병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

- ① 갑은 보편적 진리는 이성이 아니라 경험으로 알 수 있다고 본다.
- ② 을은 모든 악한 행위는 고의가 아니라 무지에서만 생긴다고 본다.
- ③ 병은 실천적 지혜로써 질투에 대한 중용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.
- ④ 갑은 을과 달리 절대적 진리는 존재하지만 인식할 수 없다고 본다.
- ⑤ 병은 을과 달리 덕을 행하기 위해서는 지식만으로 충분하다고 본다.

8. 근대 한국 사상 (가), (나)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? [3점]

(가) 사람들의 원한이 오랫동안 쌓여 왔기 때문에 세상이 어지럽다. 원한을 해소하고 서로를 살리며[解冤相生], 은혜를 갚는 것이 새로운 안정을 얻는 첫걸음이다.

(나) 일원상(一圓相)이라는 근원과 삼학(三學)으로써 진리를 얻어, 영혼과 육체를 함께 닦고[靈肉雙全] 도학과 과학을 함께 발전시켜야[理事並行] 한다.

- ① (가): 신분의 차별이 사라진 평등한 사회를 실현해야 한다.
- ② (가): 무속과 도가를 재해석하여 시대 혼란에 대응해야 한다.
- ③ (나): 종교적 수행뿐만 아니라 사회적 실천도 병행해야 한다.
- ④ (나): 기존의 불교를 개혁하여 불교의 생활화를 지향해야 한다.
- ⑤ (가), (나): 성리학적 질서만을 근본으로 민족의식을 고취해야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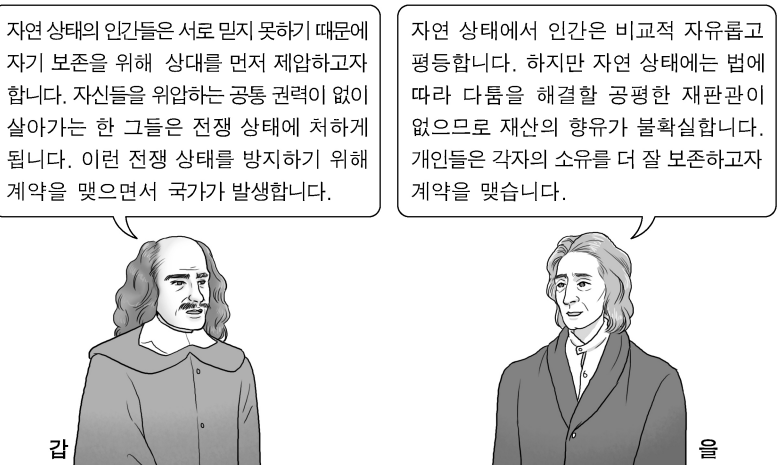
9. 현대 서양 사상가 갑,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?

갑: 인간의 본성은 없다. 그것을 구상할 신이 없기 때문이다. 인간은 실존하게 된 이후에 스스로에 대해 구상하고 바라는 대로 있게 된다. 이것이 실존주의의 제1원리이다.

을: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. 절망에 의한 죽음은 언제나 자기를 삶 가운데로 옮겨 놓는다. 절망한 사람은 죽을 수가 없다. 이것은 마치 칼이 사상을 죽일 수 없는 것과 같다.

- ① 갑: 인간은 자신이 선택한 주체적 삶에 대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.
- ② 갑: 인간은 삶의 객관적 목적 실현을 위해 실존을 회복해야 한다.
- ③ 을: 실존의 최고 단계에서는 보편적 윤리 규범만을 따라야 한다.
- ④ 을: 인간은 주체적 결단보다 합리적 사유를 통해 자이를 확립해야 한다.
- ⑤ 갑, 을: 자신의 실존을 깨닫기 위해서는 신의 존재를 거부해야 한다.

10. 그림은 근대 서양 사상가들의 가상 대화이다. 갑,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? [3점]



- ① 갑: 평화와 안전은 자연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보장된다.
- ② 갑: 자연 상태의 인간은 자기 보존 욕구 때문에 이성을 지니지 못한다.
- ③ 을: 인간이 지닌 자연권은 국가가 성립된 후에도 소멸되지 않는다.
- ④ 을: 인민은 어떠한 경우에도 입법부의 권력에 저항할 수 없다.
- ⑤ 갑, 을: 재산권의 효과적인 보장을 위해 절대 권력이 필요하다.

11. (가)의 근대 서양 사상이 갑, 을, 병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(나) 그림으로 표현할 때, A~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 [3점]

(가)	<p>갑: 쾌락에 몰두한 사람이라도 '향락을 위해 자연적 재능을 방치해도 된다.'는 준칙이 법칙이 되길 바라지는 않는다. 우리는 보편적 법칙에 맞는 행위의 준칙을 따라야 한다.</p> <p>을: 쾌락과 고통의 양을 계산하여 비교하라. 저울이 쾌락 쪽으로 기울면 그 행위의 좋은 경향을 말해 줄 것이고, 고통 쪽으로 기울면 그 반대의 경향을 말해 줄 것이다.</p> <p>병: 쾌락의 질적 차이도 고려해야 한다. 다른 것을 평가할 때는 양뿐 아니라 질도 고려하면서, 쾌락을 평가할 때는 양만 따져야 한다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.</p>
(나)	

- ① A, F: 도덕의 원리는 모든 인간을 평등하게 고려하는 것임을 간과한다.
- ② B: 도덕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행복을 위한 방법임을 간과한다.
- ③ C: 사회 전체의 행복은 개인들의 행복의 총합임을 간과한다.
- ④ D: 행위 관련 당사자들의 쾌락의 양을 고려해야 함을 부정한다.
- ⑤ E: 쾌락의 추구가 개인의 행위 준칙이 될 수 있음을 부정한다.

12. 고대 동양 사상이 갑,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<보기>에서 고른 것은? [3점]

(가)	<p>갑: 대도(大道)가 무너지니 인(仁)과 의(義)가 생기고 지혜가 나오니 큰 거짓이 생겼다. 성인의 가르침을 끊고 지식을 버리면 사람들의 이로움이 백배가 된다. 인을 끊고 의를 버리면 사람들이 효도와 자애를 되찾게 된다.</p> <p>을: 우리의 다리가 짧다고 하여 길게 늘어 주어도 괴롭고, 학의 다리가 길다고 하여 짧게 잘라 주어도 슬프다. 본디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는 법이다. 인과 의 또한 괴롭고 슬픈 것으로, 사람이 본디 갖춘 것이 아니다.</p>
-----	---

<보 기>

가.	갑은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서 인과 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본다.
나.	을은 목적 없이 노니는 것[逍遙]이야말로 자유의 경지라고 본다.
다.	갑, 을은 큰 나라에 많은 백성이 있어야 이상적인 사회라고 본다.
르.	갑, 을은 아름다움과 추함[美醜]의 구별이 상대적인 것이라고 본다.

- ① 가, 나    ② 가, 다    ③ 나, 르    ④ 나, 르    ⑤ 다, 르

13. 그리스도교 사상이 갑,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<보기>에서 고른 것은?

(가)	<p>갑: 인간에게 믿음, 소망, 사랑이 있는데, 그 중 사랑이 가장 위대하다. 왜냐하면 누구든 신의 나라에 도달할 때 믿음과 소망은 줄어들 수 있지만, 사랑만은 더 크고 강하게 영속하기 때문이다.</p> <p>을: 인간은 면죄부가 아니라 신의 은혜로 그리스도가 있는 천국에 이를 것이다. 신에게 순종할수록 죄의 세력이 약해지지만, 신에게 거역할수록 죄의 세력은 강해진다.</p>
-----	--

<보 기>

가.	갑은 악을 신이 창조한 것으로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본다.
나.	갑은 믿음, 소망, 사랑을 종교적 덕이 아닌 도덕적 덕이라고 본다.
다.	을은 누구나 성서와 기도를 통해 신과 대화할 수 있다고 본다.
르.	갑, 을은 구원이 은총과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본다.

- ① 가, 나    ② 가, 다    ③ 나, 르    ④ 나, 르    ⑤ 다, 르

14. (가)를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의 입장에서 볼 때, (나)의 ㉠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? [3점]

(가)	우리가 파악하는 것은 모두 신의 능력 안에 있는 것이고 필연적으로 존재한다. 인간은 신 안에 있고 신 없이는 존재할 수도 생각될 수도 없는 존재이다. 인간은 신의 본성이 일정하고 결정적인 방식으로 표현되는 양태이다.
(나)	제자: 자유로운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? 스승: _____ ㉠ _____ 존재라네.

- ①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음을 이성적으로 관조하는
- ② 인격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
- ③ 이성을 통해 모든 감정을 제거하고 영원한 행복을 찾는
- ④ 자연의 필연적인 인과 법칙으로 결정된 삶에서 벗어나는
- ⑤ 자기 보존의 욕망을 단념함으로써 덕 있는 삶을 추구하는

15.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주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인(仁)이란 무엇일까요? 인은 자기를 이기고 예(禮)로 돌아가는 것입니다. 사람이 하루만이라도 사욕을 이기고 예로 돌아가면 세상이 모두 어질게 될 것이니, 인의 실천은 나의 일이지 남의 일이 아닙니다. 예가 아니면 보지도 말고, 예가 아니면 듣지도 말고, 예가 아니면 말하지도 말고, 예가 아니면 움직이지도 말아야 합니다.

- ① 예를 행할 때는 검약하지 말고 가급적 사치스럽게 해야 한다.
- ② 신하는 임금에게 충성하고 임금은 신하를 예로 대해야 한다.
- ③ 어진 마음을 바탕으로 한 예를 실천하기 위해 언제나 힘써야 한다.
- ④ 효는 부모가 살아 계시거나 돌아가셨거나 항상 예로 모시는 것이다.
- ⑤ 백성을 예로 대해야 백성이 자신의 부도덕한 행위를 부끄럽게 여긴다.

# 4 (윤리와 사상)

# 사회탐구 영역

[16~17] 갑, 을은 한국 유교 사상가들이다. 물음에 답하시오.

갑: 사단(四端)과 칠정(七情)의 근원을 찾아 올라가면 이기(理氣)의 분별이 있다. 같음 속에 다름이 있으니, 사단은 이(理)를 위주로 칠정은 기(氣)를 위주로 말한 것이다. 이들을 나누어 배속시키는 것에 어찌 불가함이 있겠는가?  
 을: 사단은 기가 발(發)함에 이가 타는 것이다.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는 것을 보면 측은지심이 발한다. 그것을 보고 측은히 여기는 것은 기이니 이것이 기발(氣發)이며, 측은의 본(本)은 인(仁)이니 이것이 이승(理乘)이다.

16. 갑, 을 중 적어도 한 사람이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<보기>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? [3점]

<보기>  
 ㄱ. 사단의 정(情)과 칠정의 정은 그 연원이 모두 같은가?  
 ㄴ. 발하는 것은 기(氣)이고 발하는 까닭(所以)은 이(理)인가?  
 ㄷ. 인과 측은지심은 모두 기(氣)가 발하여 이(理)가 탄 정인가?  
 ㄹ. 사단은 칠정을 겸(兼)할 수 없지만 칠정은 사단을 겸할 수 있는가?

- ① ㄱ, ㄴ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② ㄴ, ㄷ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③ ㄷ, ㄹ
- ④ ㄱ, ㄴ, ㄹ 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⑤ ㄱ, ㄷ, ㄹ

17. 다음을 주장한 한국 사상가가 갑에게 제기할 수 있는 반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인의예지(仁義禮智)라는 명칭은 행사(行事) 이후에 성립한다. 남을 사랑한 뒤에 인이라 하고 나를 선하게 한 뒤에 의라 한다. 손님과 주인이 공손히 인사한 뒤에야 예라는 명칭이 성립한다. 사물을 분명하게 분별한 뒤에 지라는 명칭이 세워진다. 인의예지라는 네 개의 낱말이 어찌 복숭아씨와 살구씨처럼 사람의 마음 가운데 따로따로 매달려 있는 것이겠는가?

- ① 사단은 이가 발하고 기가 그것을 따르는 도덕 감정임을 모르고 있다.
- ② 사단은 사덕이 내재함을 알려주는 실마리(緒)임을 모르고 있다.
- ③ 사단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지니는 선천적인 감정임을 모르고 있다.
- ④ 사덕은 태어난 순간 마음 안에 갖추어진 본성임을 모르고 있다.
- ⑤ 사덕은 선을 좋아하는 기호(嗜好)를 따라 실천하여 형성됨을 모르고 있다.

18. 사회사상가 갑,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갑: 평화는 어떠한 폭력도 없는 상태이다. 폭력에는 전쟁처럼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폭력 외에도 사회구조 자체에서 일어나는 구조적 폭력과 종교와 사상 등에 내재하는 문화적 폭력이 있다.  
 을: 천하에 재난과 찬탈과 원한이 일어나는 것은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.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는 겸애(兼愛)와 서로 이롭게 하는 교리(交利)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.

- ① 갑: 직접적인 폭력을 제거하는 것만으로 진정한 평화는 달성된다.
- ② 갑: 소극적 평화를 이루면 적극적 평화를 지향해야 할 필요는 없다.
- ③ 을: 자국과 타국을 차별하지 않는 사랑으로 인류애를 실천해야 한다.
- ④ 을: 친소(親疎)를 분별하는 사랑으로 자국의 이익을 도모해야 한다.
- ⑤ 갑, 을: 평화 실현을 위해서라면 적국에 대해 선제공격해야 한다.

19. 고대 서양 사상가 갑,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<보기>에서 고른 것은? [3점]

갑: 인간 본성은 선에 대해 약한 것이 아니라, 악에 대해 약하다. 본성은 고통의 부재인 쾌락에 의해 구원되는 반면, 고통에 의해 파괴되기 때문이다. 쾌락은 행복의 시작이자 끝이다.  
 을: 인간 본성에 따라 자유인이 되기를 바라라. 부자나 권력자가 되기를 바라지 말라. 이를 위해 너에게 달려 있지 않는 것을 과감하게 무시하라. 이성을 통해 부동심의 상태에 도달해야 한다.

<보기>  
 ㄱ. 갑: 육체의 고통과 마음의 불안이 없는 상태를 지향해야 한다.  
 ㄴ. 갑: 공동선을 위해 사회와 국가에 적극적으로 헌신해야 한다.  
 ㄷ. 을: 평온한 삶을 위해 욕망과 감정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야 한다.  
 ㄹ. 갑, 을: 행복을 위해 정신적 쾌락보다 감각적 쾌락을 추구해야 한다.

- ① ㄱ, ㄴ    ② ㄱ, ㄷ    ③ ㄴ, ㄷ    ④ ㄴ, ㄹ    ⑤ ㄷ, ㄹ

20. 사회사상가 갑,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<보기>에서 고른 것은?

갑: 나의 활동이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만큼 나는 자유롭다. 타인의 방해받지 않는 영역이 일정한 한계를 넘어서 축소될 때, 나는 강제 받고 있거나 노예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.  
 을: 자유는 시민과 노예 간의 대조를 통해 표현된다. 노예와는 달리 자유의 조건은 타인의 자의적 권력에 종속되지 않는 사람, 즉 타인에 의해 지배받지 않는 사람의 지위로 설명된다.

<보기>  
 ㄱ. 갑: 국가는 개인의 소극적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.  
 ㄴ. 을: 시민권은 자연적으로 주어진 천부 인권이다.  
 ㄷ. 을: 타인의 자의적인 지배가 없는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.  
 ㄹ. 갑, 을: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법으로 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없다.

- ① ㄱ, ㄴ    ② ㄱ, ㄷ    ③ ㄴ, ㄷ    ④ ㄴ, ㄹ    ⑤ ㄷ, ㄹ

\* 확인 사항  
 ○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(표기)했는지 확인하시오.